



1장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그리스도

제 1 장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개요(大要)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된 신성의 본성이심과 더불어 인류의 인성과 (죄를 제외하고는) 같으신 분이심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완전한 인성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대표하는 맏아들로 하나님께 가납되었고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셨다. 이 아들만이 만유의 후사이시며 신자들은 그 안에서 만유의 공동 상속자가 된다. 다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유업을 상속 받으려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서 론

히브리서 1장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온 인류의 아들로서 얻은 상급(만유의 후사,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옛적에”) 선지자들의 인격 안에서 ‘여러 시기’와 ‘여러 번’(many times, NIV; NLT)에 걸쳐서 다양한 양식(방법, 방식)으로 말씀해오셨다.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날인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 아들은 신성으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지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 아들은 인류를 대표하여 “세상의 후사”(롬 4:13)가 되신 분이셨다. 또한 우리를 “만유의 후사”로 삼으시기 위해 지상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서론에서의 이러한 대략적인 기술은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본서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바울은 히브리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참 신성과 인성, 그의 구속 사업의 의미, 그리고 현재 하늘에서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봉사, 필연적으로 제사장 봉사에 수반되는 현재와 미래에 성취될 죄의 정결사업에 관하여 증거 하였다.

바울은 구주께서 승천하신 지 한 세대(40년)가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아들의 피로써 인준된 새 언약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방황하며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이들이 곧 있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성의 멸망이 이르러 올 때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

- A. 히 1:1~3,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 B. 히 1:4~14,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아들

A.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1:1~3)

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 가장 서두의 두 절에서는 “옛적에” 라는 말과 “이 모든 날 마지막” 이라는 말로 구약과 신약 시대를 대조하고 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through), 그리고 선지자들의 인격 ‘안에’ (in)서 말씀 하셨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인격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 하였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여러 부분” 은 ‘많은 조각으로’ ,(시간이나 방법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신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러 번’(many times, NIV; NLT)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한다. “여러 모양” 은 ‘다양한 양식’ (방법,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을 의미한다. 성경의 말씀과 계시는 단편적이고 많은 부분들이 모아진 것이다.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과 꿈’ 으로, ‘여호와와의 사자나 천사의 방문’ 으로 혹은 ‘비유’ 나, ‘상징적 행동’ 이나 ‘자연계의 현상들’ (지진, 불, 짐승들, 여러 표적)로 나타났다.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 “이 모든 날 마지막” 은 ‘말세’ (행 2:17; 히 9:26; 약 5:3; 벰전 1:5,20; 벰후 3:3; 요일 2:18; 유 1:18)로 신약성경에 표현된 메시아 시대를 의미한다.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 나타난 말씀의 계시는 더욱 완전하고 큰 것이었다.

만유의 후사 -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에 의해 아들은 “만유의 후사” 즉 ‘만물의 상속자’ 로 임명되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언약에서 잘 나타나 있다. 믿음을 좇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후사” (롬 4:13)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롬 8:17; 참고

마 5:5; 25:34; 갈 4:7) 즉 공동후사가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인성으러써의 승리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의 자리를 취하시고 인류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업 무를 자’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세상의 후사가 될 자격을 가질 수 있으신 것은 보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세계를 지으신” (1:2)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본문에 사용된 “세계” (헬, 아이오나스)는 단지 지구에 한정된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헬라어 ‘아이오나스’는 ‘시대’ (an era), ‘세대’ (an age)를 의미하는 헬라어 ‘아이온’의 복수 형태이므로, ‘아이오나스’는 본래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우주 세대’로 해석됨이 옳다고 생각된다. NIV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우주’ (universe)로 번역하였다. 느헤미야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 . .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니” (느 9:6), 그리스도는 보이는 물질 뿐만 아니라 모든 도덕적 가치와 존귀와 영광을 창조하신 분이시다(골 1:16).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광채시요 - 아들은 “영광의 광채시요”라고 선언되었다. 여기에 “~시요” (헬, 온, being)는 그가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1:1)고 했을 때 “계시니라” (헬, 엔)는 말과 그 뜻이 같다. 예수님은 태초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신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있는 자” (출 3:14)이시기 때문에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派生)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²³⁾.

본 절의 “광채” (헬, 아파우가스마)는 ‘빛’ 과 같은 말로 직접적으로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빛’ 과 외부에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광채’ 둘 다를 의미한다. 예수님은 자신을 빛의 근원으로 선포하였다. “나는 세상의 빛이” (요 8:12)라고 하였고, 빌립에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 (요 14:9)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창세전에” (요 17:5) 이미 아버지와 영화를 소유하신 분이셨음을 증거한 것이다.

동시에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자신의 삶을 통해 구현하셨다. 빛이 태양과 속성이 같은 것처럼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스런 품성을 세상에 반사하는 일을 하셨다.

본체의 형상이시라 - 그리스도는 개체를 지니신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 이시다. “본체” 에 해당하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 (hypostasis)는 ‘개체’ , “실상” (히 11:1), ‘실체’ , ‘본질’ 을 나타낸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내적 본체와 같으시고 동일 본질로서의 정확한 실체이셨다. “그리스도는 개체를 가지신 구주로 세상에 오셨다. 그는 하나님을 개체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셨다.”²⁴⁾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체를 갖고 계신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라. 그러면 이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구주께서 그와 아버지가 하나이심 같이 그의 제자들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얼마나 열렬히 기도하셨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성은 이 양자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제자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와 하나됨과 같다.”²⁵⁾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형상” (헬, 카라테르)이라는 말은 ‘찍혀진 표’ (조각, 각인), ‘도장 자국’ 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유적인

23) 시대의 소망(Ellen G. White, *Desire of Ages*), p. 530.

24) 원고(Ellen G. White, Manuscript), 86, 1898.

25) 복음주석(Ellen G. White, Bible Commentary), 요 17:20-23.

단어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이 그의 품성 속에 나타” (복음주석, 골 2:9)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속성을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나타내신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 “붙드시며”의 헬라어 ‘페로’는 ‘운반하다’, ‘인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만물을 유지하기 위해 붙드실 뿐만 아니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한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우주의 질서, 생명의 법칙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시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이다.

“여호와와는 하늘(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사 45:18)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 이 문맥은 “우리의 죄(들)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1:3)로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 이 일은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 (단 9:24)는 사건과 같은 것이었다. 메시아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예비된 몸 안에서 인류의 모든 시험을 대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육신 안에서 죄를 끝나게 하셨다(롬 8:3).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인류를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정결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은 높이 존경 받고 계신 위엄의 성부를 나타낸다. 성부에 의하여 성자는 ‘존경과 권세의 자리’인 “우편”에 앉게 되었다. “앉으셨느니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으로써의 권한을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으시고 공식

적인 취입(대관식)을 하신 것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 110:1~2)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중보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인성으로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의 생애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7:25). 뿐만 아니라 사단을 제거하심(요 12:31; 고전 15:23-28)으로 우주적 정결을 완성하신다.

B.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아들(1:4~14)

4.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 “그렇게 보다 뛰어나게 되심은” 이라고 읽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나 ‘아들’이라는 이름을 인류를 대표하여 기업으로 상속 받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위치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천사보다 뛰어나게 ‘되신’²⁶⁾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실 때에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2:7) 되셨다는 사실을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하다.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

26) M. L. 앤드리어슨은 “(뛰어)남(Being made)” 보다 더 좋은 번은 번역은 “(뛰어나게)됨(having become)”이라고 말한다. 남대극 외 12인 역, M. L. 앤드리어슨, 히브리서註釋(M. L. Andreason, THE BOOK OF HEBREWS)(서울: 삼육대학 대학원, 1982), p. 57.

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 (빌 2:7-8)하셨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빌 2:9) 하사 받으신 것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심 - 이름을 기업을 얻으셨다는 것은 이름을 온 인류를 대표해 상속 받으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처럼 “예수” (마 1:21)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지만(갈 4:4) 죄를 승리하셨다. 그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롬 1:4). 그리고 승천하셔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이름을 기업을 상속 받으셨다.

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 . . 하셨으며 -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전체로서 “아들들” (욥 2:1)이라 부르셨지만 개별적으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고 하신 적이 없다. 본문의 “하셨으며” 는 ‘하셨느냐?’ 라는 의미로 수사학적인 질문이다. 이 문맥은 그런 적이 없다는 말을 유도해 내는 말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 . . 하셨느냐 - 이 말은 시편에서 다윗이 그의 아들, 모형적으로 메시아인 솔로몬에게 보좌를 넘겨주면서 한 말이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 2:7~8). 다윗에게 아들의 의미는 열방을 유업(상속)으로 받는 자를 의미했다. 그리스도는 출생, 침례, 부활, 승천 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

- ① 출생 -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눅 1:35).
- ② 침례 -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눅 3:22).
- ③ 부활 -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롬 1:4).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행 13:33).

④ 승천 후 대관식: “내가 너를 낳았다” - “낳았다” (헬, 겐나오)는 ‘낳다’, ‘출생하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아들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2:14) 그리스도께서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다. 이것은 구주께서 세상의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2:10)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것을 말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 21:7). 그리스도는 대속을 위해 아들이 되셨고 출생부터 승천까지 단계적으로 이름의 인정을 받으시고 마침내 부활과 승천으로 승인을 얻으셨다.

많은 사람들은 성자의 기원을 출생으로 본다. 그러나 영감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빌려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파생(派生)되지 않은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 (요일 5:12)다” 27).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존재 하지 않으신 때가 있었다거나 출생되거나 파생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이설이 있어 왔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퍼져 있는 잘못된 삼위일체의 가르침의 기원은 서

27) 시대의 소망(Ellen G White, *Desire of Ages*), p. 530.

기 325년 니케아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소위 정통견해라고 받아들여지지만 이것은 사단의 주장이 들어간 허위 신조이다.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 ✓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기(출산, generation) 때문에 아버지와 본성이 같다.
- ✓② 그리스도가 났다(begotten)는 것은 성부와 동일 본질이 되게 하는 것이다.
- ✓③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발출, procession) 영이며, 삼위일체 구성원의 한 부분이다.

이러한 이해는 후에 ‘아타나시우스의 신경’ (AD 420~425)으로 요약되어 나타난다. “성자는 성부께 지음을 받지도 않으시고 창조되지도 않으시고 다만 성부로부터 나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영원적 출산’ (eternal generation)이라고 부른다. 성자는 영원하지만 시간 이전에 아버지가 낳으신 분, 출산(出産)하신 분이라는 뜻이다. 시간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보면 영원 전이라는 주장이다. 아타나시우스는 엄연한 의미에서 성부는 영원하지만 성자는 영원하지 않다는 잘못된 주장을 펴다. ✓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 셋이 아니요 다만 영원하신 분 하나이시며” (아타나시우스 신경)라고 선포한다.

한편 성령에 대한 허위적인 가르침은 아버지와 성령의 관계는 발출(發出, procession)이라고 한다. 이것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파생되어 나온다는 것이다. 381년에 가르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는 “성령을 믿노니 이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부에게서 나오는 자” 라고 말하고 주장하였다. 가톨릭 삼위일체의 바탕이 된 오리겐(Origen)은 “성령의 신성은 아버지로부터 파생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속되듯이 성령도 아들에게 종속된다” 고 하였다. 성령에

관한 이러한 견해를 소위 ‘파생적 종속론’ 이라고 볼 수 있겠다. 오늘날 가톨릭 대사전에도 ✓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는 영”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 어떤 무리들은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엄연한 의미에서 위격을 가지신 성령은 없는 것이다. 위커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지적한다. 위커(W. Walker)에 의하면 ✓ “터틀리안, 오리겐,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아들과 성령이 아버지께 예속된다고 가르쳤다.” 28)

아리안 파(The Arians)는 예수님은 무에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원 전에 계셨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의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사실에 관해 피셔(George. P. Fisher)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그리스도는 피조된 사물의 맨 처음이요, 이를 통해서 기타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 . . 그리스도는 엄격하게 말해서 시간 안에서 존재하시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간 이전에 존재하시기 시작한 것이었다.” 29)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아래 영감의 글로 요약하고자 한다.

“말씀은 거룩하신 분, 곧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당신의 아버지와 하나가 된 상태로 존재하셨다” 30).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31)

“인간의 아들이면서도 주님께서서는 새로운 의미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

28) W.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5), p. 180.

29) George P. Fisher, *History of Christian Doctrine*, p. 314.

30) 복음전도(Ellen G. White, *Evangelism*), p. 615.

31) 상계서, p. 616.

셨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나시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으로 출생하심으로 인류와 연분을 맺으셨다.” 32)

“온 우주가 보는 가운데 침례를 통해 맺어지는 위대한 언약의 사역에 이 세 분이 협력하신다.” 33)

6.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만아들 - 헬라어 ‘프로토토코스’ (prototokos)는 인류의 장자로서의 아들의 우월성, 절대성을 강조하는 말이다(눅 2:7; 롬 8:29; 골 1:15, 18, 25; 히 1:6; 2:11; 계 1:5).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 “다시” (헬, 팔린)는 ‘게다가’, ‘더욱이’라는 뜻이다. 문자적으로는 ‘더욱이 데려오실 때에’가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킹제임스 성경)라는 뜻이 된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지만 여전히 신성이기를 그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경배해야 했고 구속 사업에 천사들은 협력하여야 하였다.

[그리스도는 아들로 계신 동안에도 신성이셨다(7-8)]

7.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바람과 불꽃은 자연의 큰 힘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또한 전능자의 강한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들이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32) 가려 뽑은 기별 1권(Ellen G. White, Selected Messages, Vol. 2), p. 226.

33) 원고 6권(Ellen G. White, Manuscript, Vol. 6), p. 163.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시 104:4),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시 18:10). 이처럼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나님의 보좌를 옹호하는 네 생물들(그룹 천사들)의 움직임은 놀랍다.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 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겔 1:13~14).

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육신인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의 형제들과 부모를 알았기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다. 바울은 이에 성부의 선언을 통해 아들의 신성을 옹호한다. 아버지는 아들의 신성과 통치가 ‘영원함’ (헬, 아이온: 영겁)을 승인한다. 더욱이 아들의 보좌는 ‘공평한’ (엄정하고 정직한) ‘홀’ (지팡이, 통치권)이라고 선언하였다.

* “주의 보좌” 가 원문에는 ‘당신의 보좌’ , “주의 나라” 가 원문에는 ‘당신의 나라’ 로 되어있다.

9.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주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예수님의 인성으로서의 품성의 우월성을 나타낸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의” (헬, 디카이오쉬네: 칭의, 경건)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의 기름” 인 “성령을 한량없이 주”³⁴⁾셨다. 또한 “그의 상처받으신 관자놀이에서 고민의 핏방울들이 그의 얼굴과 수염으로 흘러내린 것은 그가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으로 즐거움의 기름(1:9)으로

34) 시대의 소망(Ellen G. White, *Desire of Ages*), p. 180.

부음을 받으실 보증이었다.” 35)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 예수님은 지상에서 생애 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품성이 탁월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의인들이나 선지자들보다 품성이 우월하신 분이셨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인류보다 “승하게 하셨” (우위에 두셨다, 킹제임스)다. 즉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선두와 머리로 아버지께 인정받으신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비교(10-12)]

- 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 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시편 102:25~27을 인용한 것이다. 내용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교한 것이다. 예수님은 “땅의 기초” 즉 세상(육지)을 세우시고, “하늘(들)” (킹제임스와 원문에 복수)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 ① 주 - 영존(영원성), 여전하며(불변성), 다함이 없다(영존성).
- ② 피조물 - 멸망할 것이고(유한성), 낡아지고(가변성), 갈아입을 것이다(한시성).

- 13.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 14.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

35) 복음주석(Ellen G. White, Bible Commentary), 막 15:15-20.

고 보내심이 아니뇨”

바울은 4절에서는 승천하신 후에 인성의 입장에서 천사보다 얼마큼 높게 되신 분을 말하고, 5~7절에서는 아들의 신성과 천사의 입장을 대조하였다. 이제 바울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왕과 제사장으로 앉은 사실을 말하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보좌의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는 직임을 수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본 절은 시편 110:1절을 인용한 것이다. 아마도 구약 성경 중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절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왕직’ (히1:3, 8:1, 10:12, 12:2; 마 26:24, 63-65; 막 14:64; 눅 22:69; 행 2:34-35, 7:55; 롬 8:34; 골 3:1)을 강조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싸움” (계 12:17)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도와서 그들이 원수를 “발등상” (발판, 킹제임스) 되게 하기까지 돕는 일을 해야 한다. 다윗은 시편에서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시 110:1) 하시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 (시 110:3)할 것을 말하고, 스가라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다 족속이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슥 10:5)고 예언하고 있다. 참고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힘이 강한 그룹들과 스랍들” (실물, 176)이 있으며 “성전의 빛나는 그 수호자 스랍” (부조, 257)은 천사들 중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